



경기도, 비상진료 중인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원 긴급 지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 원 3월 초 경기도의료원에 지원키로

경기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시간 연장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지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난관리기금을 경기도의료원에 지급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감염병전담병원 의료 장비 확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40억 원을 도 의료원에 지원



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 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로 연장

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경기도 역시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김범상/기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하세요

8일까지 접수...400개 기업 800명에게 4년간 2천만원씩 지원



전라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등에게 4년간 2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해 참여 기업을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전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다른 대도시 취업자와의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에 안

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만 18~45세 이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4년간 최대 500만 원, 청년 근로자에게는 최대 1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소재지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가 전남에 정착하고 활동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정착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외에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자원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산학협력 패키지과제 운영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경북도, 2025 APEC 경북유치 추진 TF 회의 개최

상반기 APEC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총력대응 강화

경상북도는 2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회의실에서 최영숙 경제산업국장 주재로 'APEC 정상회의 경북유치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고, APEC경주 유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APEC 경북 유치 추진 TF회의'는 APEC경주 유치를 위해 관련 부서 간의 협업으로 유치 활동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하고자 지난해 12월에 출범했다.

TF단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부단체장은 국제관계대사, 총괄실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맡고 있으며, 외교통상과·대변인·정책기획관·관광정책과·경북문화관광공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APEC 정상회의 유치 관련 자료수집·분석, 외교부 APEC 준비단 대응, 중앙정부 및 국회 등 대정부 유치 활동과 대내외 유치 홍보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관련 기관들이 참석해, APEC 개최 도시선정 시까지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추진 현황을 비롯하여 대정부 대응계획, 대내외 집중 홍보방안 등을 점검하고 토의했다.

2025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정상회의가 열리며, 외교부는 국내 개최 도시를 올해 상반기 내로 결정한다.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4개 도시



가 APEC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경북 경주는 APEC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표시한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며,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 가치"와 현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가장 적합한 도시이다.

경주는 역사 문화관광 도시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며, 신라시대의 국제교역과 K컬처의 출발지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은 세계 정상들에게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히며, 회의장인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3km 이내에는 회의 시설, 숙박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국제회의의 복합지구로 선정됐으며, 이미 2012년 APEC교육장관회의,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경북도는 APEC정상회의 개최로 경주가 동북아시아 최대·최고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인근 도시인 포항·구미·경산 등 경북지역에도 신산업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APEC경주 유치는 경북도민 전체에게 자긍심을 안겨주고 국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북도는 유치공모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APEC경주 유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설득해 반드시 경주가 선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충남도 "국민통합·대한민국 대전환 이끌 것"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거행...보훈단체장 등 800여 명 참석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3.1운동의 역사를 계승해 충남이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김 지사와 도내 보훈단체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개식선언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 표창, 김 지사 기념사,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105년 전 그날의 열망과 함성은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투쟁,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며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전과 성취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조국의 독립 앞에서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꿈꿨던 3.1운동의 역사를 계승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민통합을 이끌어 가겠다고 "충남은 지방과 수도권, 사회경제적 약자와 강자, 노장청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서북부권과 서남부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베이벨리 완성 등 대한민국

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며, 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의대 설립에도 앞장서 "17개 시도 가운데 맨 앞에 서서 통합과 상생의 미래를 그려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김 지사는 또 "'기초를 확립하고 바탕을 다진다'는 축기견초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새 기틀을 세우겠다"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는 뜻도 내놨다.

이를 위해 제2의 농지개혁, 제2의 새마을운동을 펼쳐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고,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후위기에는 탄소중립경제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석탄화력발전 특별법 제정을 이뤄내 10조 원 대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등 석탄화력 폐지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저출생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이나, 현금성 정책과 같은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취업과 주거, 결혼, 출산, 양육, 교육 등 생애주기 단계마다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충남은 한치의 공백도 없는 지역 돌봄시스템을 구축하

고, 충남형 리브투게더를 통해 주거 격차를 해소하는 등 저출생 극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며, 충남인의 DNA에는 시대와 나라를 이끈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이 새겨져 있다"라며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자. 선열들의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된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김 지사는 김기영·전형식 도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과 함께 내포신도시 보훈공원 충혼탑을 참배하며,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고, 충남 발전과 220만 도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최정근/기자



자율 균형 미래
Q 三

정책 파세요~

[파세요] 정책 대량구매 합니다

e정책장터에서 좋은 정책 파세요

- ✓ 대상: 경기교육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 시기: 언제나(상시)
- ✓ 내용: 교육정책 아이디어와 개선안 등

채택되면 금상, 은상, 동상(상금과 표창) 글 내리기 전까지 계속 구해요~

경기도교육청
DO THE Goe · 1분전

조회 2490055

e정책장터 바로가기

www.epolicymarket.goe.go.kr

경북도의회 이철구 운영위원장, 시도의회 3급 직원 신설 강력 건의안

경상북도의회 이철구 운영위원장은 2월 27일 전남 강진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하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 모두 현장과 민생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역할은 누구보다 민생과 맞닿아 있는 시도 운영위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자재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경남도의회에서 제안한 ‘광역의회 3급직위 신설 건의안’은 모든 광역의회가 원하는 현안 사항이다. 지금까지 광역의회는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조직 형태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철구 협의회장은 “이번 회의 안건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많다.”며, “이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성숙한 정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의원과 관공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개원초·개포중 재개교 준비 상황 현장 점검 진행

이승미 위원장, “학교 개교에 차질이 빚어져 큰 우려... 학교가 정상화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3)]는 2월 29일, 오는 3월 1일 재개교 예정인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를 방문해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322회 임시회 중 실시된 이번 현장 점검은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으로 각각 2019년과 2017년에 휴교 뒤 개교 공사가 실시된 서울개원초등학교와 개포중학교가 공사 준공이 지연된 상황에서 개교하게 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 준공 지연 경위와 이에 따른 문제점,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교실 및 급식실, 체육관 등과 주변 통학로를 살펴보는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개교를 목전에 두고 고도 제대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됐다는 우려를 표하며, 공사 차질이 드러나고 적지 않은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그리고 고광민 부위원장도 공사 준공 지연의 원인이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공사 관리·감독

부실과 안일한 대처에 있다는 점을 짚어내며, 미완공 상태에서 개교하게 된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종태 의원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학교 건립 공사를 조율이 추진하여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고집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의 체계적인 공사 관리·감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조율이 교육청에 학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는 교육청이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면서 “학교 개교에 차질이 빚어져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분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교육청은 항시 수시로 상황보고를 하길 바라며 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속한 공사 완료뿐 아니라 금년 하반기 개교 예정인 인근 개현초 학생들도 상반기에 개원초를 이용하는 만큼 이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배영숙 부산시의원, 2024 부산인구미래포럼에 토론자로 나서

저출산 인식 개선에 큰 영향 미치는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 강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이 2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 ‘2024 부산인구미래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출산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초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황에 대하여 정책, 경제, 교육 3가지 분야에서 살펴보고 부산이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부산일보사, 부산시교육청,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BNK금융그룹,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후원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산의 미래-저출산 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정책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초저출산은 결국 인구구조의 고

령화로 직결된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고용불안·주거불안·양육불안 등 ‘불안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기조연설을 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여한 배 의원은 양육불안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이 그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액이 늘어도 부모 부담 줄지 않는 사회적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정산에 있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2020년 기준 자궁경부암이 전국 평균 11.4%의 수치인데 부산은 14.3%로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저는 부산 거주 여성 청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면서, 올해 부산에서 처음 시행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가임력보존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부산시 거주하는 임신·출산 준비 부부와 부모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결혼과 출산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이 80.9%가 나왔다.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청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언론과 미디어가 앞장서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시고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부산시의원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에 따른 부산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를 목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 계획 수립 등을 담은 조례로서 3월 부산시의회 제319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김희태/기자

대구시의회 “반도체산업 지원근거 마련해 반도체 허브도시로 도약 박차”

박종필 시의원,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비례)은 지난 2월 27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내 ‘센소리움 연구소’를 방문해 지역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는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대구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이에 발맞춰 박종필 의원은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종필 의원은 “충북은 이미 2020년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 대전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대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될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에 앞서 박 의원은 지역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내 센소리움 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 현황을 청취하고 클린룸, 공정장비 등 연구시설을 둘러 보았다.

대구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유리한 지역 산업구조 상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판단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손을 잡고 비메모리반도체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

바로 센소리움 연구소와 D-FAB(대구형 반도체 팹)이다.

‘센소리움 연구소’는 2022년 개

소한 지능형 첨단센서 거점 연구기관으로, 센서 공정장비를 구축하고 센서 상용화, 실증연구 및 요소기술 개발 등 센서반도체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또한 ‘D-FAB(대구형 반도체 팹)’은 2025년 건립 예정인 8인치 기반의 기업 전용 센서반도체 생산시설로, 반도체산업 설계·제작·실증 및 양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박종필 의원은 조례제 연구소장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산업은 대구시의 중요한 먹거리산업이다. 반도체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지역 고용 창출과 기업 매출 확대, 기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 반도체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리라고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의회에서도 관련 에

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함께 자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할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우수 인력 유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반도체산업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집적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조례안은 제307회 임시회(3. 5. 부. 3. 15.)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구시의 반도체산업 활성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근수/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지역사랑상품권과 24시간 소아병원 확대운영 위해 사활 다짐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 통과 위해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

29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3월 4일에 열린 제282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회기에 다루어야 할 안건과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고양시민이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민생고와 각종 사회적 이슈들로부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에 전원 동의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대처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시의회와 의원들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의원 스스로의 의무와 권한을 저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민생예산이 제때 통

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총의를 모았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명줄이므로 해당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위해 24시간 소아병원 확대·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내에 별도의 TF팀을 꾸려 세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임시회 기간 중 대표단을 중심으로 야당 및 집행부와와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27일, 민생예산 확보 및 신속한 추경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윤근수/기자

의정부시의회, 삼일절 맞아 나라 사랑 의미 되새겨

의정부시의회는 1일 신한대학교 벨엘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위원장, 도·시의원,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장, 관내 기관 및 단체장,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광복을 향한 의지를 표현한 무대를 선보인 후, 국민의례, 표창 수여,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및 축사, 삼일절 기념 시 낭독, 무용단 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함께한 의원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희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삼일절 기념식을 통해 선열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함께 노력하자”며 “이것이 애국선열의 공헌에 보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리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합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동영 도의원,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개통식 참석 “남양주 동서관통 실현”

오남~수동 이동시간 50분→10분 단축, 우회 대비 24km 단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2월 29일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개통식’에 참석해 남양주의 교통 여건이 개선됨을 축하했다.

김동영 의원은 “남양주시의 동서를 잇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의 개통에 진심으로 기쁘고, 개통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와 오남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오남~수동 구간의 개통으로 오남이 남양주시의 교통 요지가 되고, 그동안 교통 정체를 큰 불편을 겪었던 남양주 시민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오남호수의 경관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오남~수동 구간 개통으로 오남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져 더 활기차고 잘 사는 동네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 개통은 오남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

기 위한 김동영 도의원의 공약 중 하나로, 이번 구간의 개통으로 김 의원은 공약을 실천하게 됐다. 실제로 그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의 개통을 위해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건설공사 안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는 왕숙 신도시, 오남 택지 개발 등 지역개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교통 현안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오남~수동 구간 개통으로 남양주시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한 가지 과제를 완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8호선 연장 별내선,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오남삼거리 일대 교차로 입체화 공사 진행에도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의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국지도 98호선은 서울 노원구에서 남양주 별내·진접·오남·수동을 지나 가평



국(청평면 대성리)까지 26.7km의 동서축을 연결하게 된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구간의 개통 전에는 국도 46호선으로 우회해 강원도 지역을 이동해야 했다. 이번 오남~수동 구

박재용 경기도의원, 사회복지 전문 분야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수교육비 지원체제 마련 필요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 전문 분야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수교육비 지원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현정선 지회장(경기도부), 신은경 지회장(경기남부), 박성수 지회장(경기북부), 인재건 부회장(경기남부), 신미경 사무국장(경기서부)이 참여하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이상명 팀장,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탁민영 팀장, 이인규 주무관이 참여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체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여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들은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사회복지협회의회에서 개설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만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요양기관 종사자가 요양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연수를 받고 싶어 하지만,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사회복지협회의회에서 제공하는 연수만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사회복지사협회 이상명 팀장은 다

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계시며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협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연수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탁민영 팀장은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연수 시행기관의 요구,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에서 행복하게 일할 때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기도와 함께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에 의원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우리나라는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적 보장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친부에 대한 인지 청구를 하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경기도의회 이인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에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

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자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 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어서 이인에 의원은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이행 등은 머나먼 먼 나라 이야기이며, 만약 친부의 법

적 책임이 강한 나라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고” 했다.

그 사례로 해외의 경우 ‘히트앤드런(Hit and Run) 방지법’이 있으며, 친부의 책임을 강조하여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안이다.

그리고 이인에 의원은 “법적무강화, 친부책임 강조하는 인식개선사업 등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친부에게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에 의원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생 극복의 시작”이라며 “우리 모두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범상/기자



설 선물은 자연과 농부의 진심을 담은
봉화장터에서!



<http://Bmall.go.kr>

특산물을 구입하려면 인터넷에서 ‘봉화장터’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증포동위원회, 태극기 달기 캠페인 전개

한국자유총연맹 증포동위원회는 29일 증포동사거리에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증포동위원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자발적으로 태극기 달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안내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 참여해주시 자유총연맹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행사로 주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고취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증포동위원회는 매년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통해 태극기 게양을 독려하고, 국가 안보의식을 되새기고 있다.

김범상/기자



여주시 9급 공무원,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위한 맞춤형 친절·청렴교육 실시



여주시는 지난 28일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마인드 함양 및 민원응대,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한 맞춤형 친절·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슬기로운 민원응대&반부패 청렴교육'이라는 주제로 갓 공직생활을 시작한 신규자를 포함하여 9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마인드 △

공직자로서의 중심잡기 △민원응대 요령 △부패 발생의 다양한 요인 △청렴을 실천하는 가치 등에 대해 분임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중우 여주시장은 "친절과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한다.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며 모든 것이 낯설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친절하고 청렴하

면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하면 여주가 더 발전되어 가는 것이 생각된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달성 및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으며,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급·업무 성격 등에 따른 다양한 친절·청렴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구·동 담당자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주요 개정사항 등 안내

수원시는 2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 교육'을 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구·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 인상, 탈수급 적극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활사업 주요 개정 사항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등 내용을

교육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2024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다.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1인 가구 기준 7.25%,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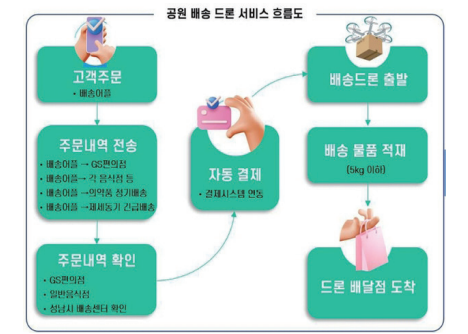
자동차 재산기준은 완화하고,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확대됐다. 자동차 중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을 인하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했다.

또 청년층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를 기준

'24세 이하 청년'에서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민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발달장애인 복지 혜택 확대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4곳 추가 지정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제공기관 2개씩 확충...시설 접근성과 복지만족도 향상 기대

용인특례시는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23일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심사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해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2곳씩 추가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아이비전 ▲WE:MILY 특수지원센터 동백점이다. 용인 지역에는 신규 지정 기관에 앞서 ▲집사회서비스센터 ▲예지원가족발달연구소 ▲용인CYA부설 마음드림심리상담센터 ▲사단법인 반딧불이 ▲사회적협동조합 용인도우누리 ▲사단법인 하울회 ▲해누리센터 등 7곳이 운영 중이었으며, 신규 기관 선정에 따라 9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기관으로 새로 선정된 기관은 ▲주스아이아동발달연구소 ▲아이비전이다. 앞서 운영 중인 ▲집사회서비스센터 ▲예지원가족발달연구소 ▲용인CYA부설 마음드림심리상담센터 ▲용인시치인장애인복지관 ▲속속아동발달센터 ▲사단법인 하울회 ▲해누리센터를 합치면 총 9곳의 기관이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한다. 추가로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지역 내 184명이 이용 중이다.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는 426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수요 증가에 맞춰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지정했

다"며 "발달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기관 확대는 지원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와 수요자의 시설 접근성 향상, 보호자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등록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고양특례시, 제105주년 삼일절 기념식 거행

이동환 시장, 기념사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 기려

제105주년 삼일절을 맞아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은 이동환 고양시장,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이영삼 광복회 고양시지회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3.1 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으로 순으로 이어졌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기념사에서 "찬란하게 피어난 독립의 함성이 오랜 세월을 거쳐 자랑스러운 고양특례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번영의 메아리로 이어져 울려 퍼지고 있다"며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했다.

또한 고양의 민족자세가자 독립운동가이셨던 이가순 선생을 언급하며 "이가순 선생께서는 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관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신 선각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시장으로서 번영의 메아리를 이어받아 더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책무와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내의 우수 기업 유치, 교육발전특구 및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교통망 확충 등 '고양성공시대, 시민 행복시대'를 다시금 약속했다.

기념사 말미에는 "나는 천국에 가



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요.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요"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되새기기도 했다.

한편 축하공연에서는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세상' 등의 공연과 오경수 명인의 서용석류 대금 산조 연주로 잔잔한 감동과 함께 고마움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리고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광주시 2024년 탄벌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광주시 탄벌동 새마을부녀회는 29일 탄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주임록 시의회 의장,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 임원을 비롯한 단체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부녀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앞장선 노수금 이임회장에 감사장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노수금 이임회장은 “그동안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신 부녀회원 및 기관단체장님들 덕분에 보람찬 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 가족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따뜻하고 희망찬 탄벌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순희 부녀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새마을지도자 및 다른 기관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탄벌동 새마을협의회 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마을 운동 이념에 따라 성숙한 주인의식을 토대로 서로 나누고 배려하며 탄벌동 지역발전과 행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다 함께 잘사

는 공동체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시는 노수금 이임회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김순희 신임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관내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아보고 배려하는 빛과 소금 같은 단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하남시, 제105주년 3.1절 하남시 기념식 개최...“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가자”

하남시가 1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관·보훈단체·유관단체·학생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렸다.

기념행사는 하남시청소년오케스트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하남의 3.1운동 영상시청 ▲독립선언서 낭독 ▲포장창 수여 ▲기념사 ▲3.1절 기념 특별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하남시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던 하남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영상시청과 독립선언서 낭독이 진행됐다.

특히, 하남시 광복회 지회장뿐만 아니라 하남시 독립유공자 후손인 구자관 고문과 김리나 양, 김시호 학생까지 총 4명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1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세대별 화합을 이뤘다.

이는 하남시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하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들이 모두 함께한 뜻깊은 자리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선열의 헌신을 돌아보면서 하나 된 하남시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화합의 장이었다.

또한, 광복회 하남시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병인 대의원 등 4명에게 각각 하남시장, 국회의원, 하남시의회의장상 표창이 이뤄졌다.

아울러, 특별공연에서는 하남문화재단과 협업해 하남시를 대표하는 하남시립합창단과 흥익대학교 뮤지컬 전공생으로 구성된 흥익앙상블팀이 합동 공연을 꾸렸다.

흥익앙상블팀은 ‘대통의 나라’로 만세 물결의 군무를 펼친 후 합창곡 ‘천명’으로 삼일절에 대한 의미와 독립의 결의를 다졌고, 이후 하남시립합창단과 흥익앙상블팀이 함께 ‘삼일절 노래’로 마무리해 3.1운동이 펼쳐졌던 그날의 감동을 재현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선열들

의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때의 함성을 교훈 삼아 3.1운동 정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갈 하남시의 미래동력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기념식 개최 후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장영숙 광복회 하남시지회 부회장, 광복회원 등 주요 내빈들과 함께 3.1절 기념비에 참배하면서 행사를 경건하게 마무리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경기도 단일 지자체 최초 국가지질공원 인증

화성시가 경기도내 단일 지자체로는 최초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앞서 화성 지질공원은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환경부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으며, 전국에서 16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29일 지정 고시됐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이를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대안적 개념의 공원제이다.

화성 국가지질공원 지정명소는 △고령리 공룡알 화석산지 △우음도 △전

곡항 충상응회암 △제부도 △백미리 해안 △궁평항 △국화도 △임파도 등 8개소로, 이번 인증으로 이를 포함한 육상 165.9km², 해상 116.6km² 등 총 면적 282.5km² 지역이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전 지질시대에 걸친 다양한 암석이 분포하고 있고 공룡알 화석이 300개 이상 발견된 국내 최대 규모 공룡알 화석산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각의 지체 구조 연구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화성시 지질유산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화성시의 소중한 지질자원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국가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16년부터 관내 지질유산 보존 및 적극적 활용을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해왔다. 2022년 7월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인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국가지질공원 본 인증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탐방인프라 개선, 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본 인증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양시현/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3·1절 기념사 “그날의 함성 후대에 할 수 있다는 용기 줘”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선조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그날의 정신을 상기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했다.

최 시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3·1절 기념사에서 “오전 천 이어온 역사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선언했고,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고 언급했다.

최 시장은 “그날 낭독했던 독립선언서에는 후대에 고동스러운 유산이 아닌 ‘완전한 행복’을 주고자 하는 선조들의 따뜻한 경건한 의지가 담겼다”며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당연시하며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선조들의 의지와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날의 함성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연대와 협력의 힘 그리고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오늘은 3.1운동 10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3.1운동은 자유와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린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오전 천 이어온 역사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선언했고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 낭독했던 3·1독립선언서에는 후대에 ‘고동스러운 유산’이 아닌 ‘완전한 행복’을 주고자 하는 선조들의 따뜻한 경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당연시하며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선조들의 의지와 희생 덕분일 것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

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의 함성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연대와 협력의 힘 그리고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열과 혼을 이어받고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며 ‘함께’라는 힘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3.1절이 과거를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날의 정신을 상기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애국지사과 독립유공자 그리고 유가족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용/기자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시행... 보장 항목 확대

안산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안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 시민들의 별도 가입절차는 없으나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3월부터는 기존의 10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사망을 비롯한 4개 보장항목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으로 보장 항목을 더욱 확대했다.

추가 보장 항목으로는 ▲사회재난 사망(1,5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

(1,000만 원) ▲강도 상해 후유장애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금은 각 보장항목의 약관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하는 4개 항목을 추가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부천시, 2024년 전략직불금 3월 4일부터 신청받아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청 방문 접수

부천시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전략직불금’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전략직불금’은 식량작물 재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신청접수 기간을 동계작물(2.1.~3.31.)과 하계작

물(2.1.~5.31.)을 분리해 운영하며,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 신규 추가, 기존 논공(㎡당 100원)에서 두류(㎡당 200원)로 품목이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됐다.

동계작물은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로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결보리, 쌀보리, 밀, 호밀, 귀리, 알팔파, 청예보리 등이 있다.

하계작물은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사료작물을 10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토대로 0.1ha 이상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겨울에 동계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원, 여름에 옥수수를 재배하면 ㎡당 100원, 두류·가루쌀을 재배하면 ㎡당 200원, 조사료 재배 시 ㎡당 430원을 지급한다.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당 10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방법은 부천시 도시농업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권동일/기자

꼭지가 달렸습니다!
청송사과 fresh!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전남도, 세계적 '드론 레저산업 선도도시' 도약 발판

실증도시 구축 공모 선정돼 드론 레이싱 기술개발대회 개최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드론 레저(드론레이싱) 국제경기 개최 분야에 선정돼 세계를 무대로 한 드론 레저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과 도비, 군비를 포함해 16억 원이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국토부에 제안하면 산업용 드론 육성과 활용 서비스 모델에 적합한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아 연구 및 실증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드론 레이싱·축구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사업 분야가 포함됐다.

전남도는 오는 10월 펼쳐지는 전남 GT와 연계해 세계적 규모의 드론레이싱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한국드론기업연합회, (주)아스트로텍스 기

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대회 조직 및 운영 방안 구축 ▲차세대 드론레이싱 기체 개발 ▲첨단 드론레이싱 트랙 운영시스템 개발 ▲국제 드론레이싱 대회 개최 등을 수행한다. 오는 11일 국토교통부와 드론실증도시 협약식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GT는 10월 12~13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드론레이싱은 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펼쳐지는 경주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정해진 코스에 따라 드론을 조종해 가장 빨리 결승점을 통과하는 기체가 승리하는 스포츠다. 레이싱에 참여한 선수는 FPV(First Person View) 고글을 통해 영상을 보며 조종하는 1인칭 시점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전남도는 드론 실증도시와 연계한 수요처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드론 분야 실증 및 기술개발



사업을 연계해 기업의 수요 창출과 상용화 등 실제 성과와 연결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자동차 경주와 드론레이싱의 융합을 통해 전남도의 새로운 레저문화 조성 및 드

론 레저산업 선도도시 이미지를 높여겠다"며 "전남에 이미 구축된 드론 기반 시설을 통해 전남을 차세대 드론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오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 마련

순천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소는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된다.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가장 방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02-6917-8119)로 사전신청 하면 된다.

또한 상담소 운영과 연계하여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신고 현장 접수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며, 접수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소지해 당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내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 체결 후에는 권리관계 변동사항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주택임대차 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준/기자



강진군, 별정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순수 국비 136억 원 확보

상습 침수지역 예방, 영농환경 개선 기대

강진군은 농림부가 주관하는 2024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된 별정지구와 군동면 장산지구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신전면 별정리 농정방조제 일대는 도암천 하류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강진만 수위가 높아져 매년 침수 피해를 겪어 왔으며, 군동면 장산지구도 해수위만조 시 탐진강 수위가 상승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일어, 그동안 영농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별정지구 100ha, 장산지구 64ha의 농경지에 대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및 배수로 보강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되며, 순수 국비 136억 원(별정지구 80억

원, 장산지구 59억 원)을 투자해, 올해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반복되던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민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매년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진군의 재정을 채우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1919년 그날의 함성, 의향 나주의 봄을 꽃 피우다

나주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의향 나주시민들이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던 그날의 함성과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렸다.

나주시는 1일 오전 10시 나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초 나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우천으로 인해 장소를 변경했다. 시민회관 출입구엔 3.1운동에 사용됐던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나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하산 김철 선생의 후손을 비롯해 지역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 광복회원, 보존단체 9곳 지회장 등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족, 후손들의 좌석을 무대 맨 앞줄에 배치해 각별하게 예우했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33인이 대표로 낭독했다.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공동명의로 세계만방에 독립 의지를 표



출했던 의미를 담았다.

나주시립합창단과 참석자들은 3.1절 노래를 함께 불렀고 동신대학교 공연무용학과 학생들은 3.1절 의미를 담은 춤공연을 선보이며 독립운동 의미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되새겼다.

독립을 갈망했던 그날의 함성을 재현할 만세삼창은 하산 김철 선생의 후손인 김경미 씨와 지역예비군 대장인 하달수 씨, 나주고등학교 김도현 학생이 대표로 나와 외쳤다.

독립유공자 후손, 유족들과 시민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

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소년소녀합창단의 '내나라 대한' 합창 공연을 끝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역사의 고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선열들의 의의는 의향 나주의 기개이자 뿌리"라며 "기념식을 통해 의향 나주인의 정신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며 유족, 후손들을 예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어 "3.1절 기념식에 앞

김영만/기자

한국 옷칠 목공예의 중심 '남원 옷칠 목공예 전시관' 타당성 학술포럼 성료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한 '남원 옷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타당성'을 위한 학술포럼이 29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옷칠 목공예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한국 옷칠 목공예의 역사와 비전"... 학술교류의 장 열려

이번 포럼은 '한국 옷칠 목공예의 역사와 비전'을 주제로 남원과 한국의 옷칠 및 남원 옷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의 방향성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유일무이한 1300년 역사의 옷칠 목공예 고장으로, 옷칠 목공예산업의 관광자원화 연계를 위한 전시관 건립 추진은 그 의미가 크다.

본 행사는 서울공예박물관 강연경 학예연구사의 사회로 기초강연, 과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표내용은 남원의 전통 공예문

화 계승과 정체성 확립(박영규,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 한국 칠기의 칠회(공회) 및 목심 조형방법의 과학적 연구(이유희, 前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장), 한국 목칠공예의 역사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을 중심으로(최영숙,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漆(칠), 아시아를 칠하다' 준비를 통해 본 아시아 옷칠 공예의 전통과 오늘(노남희,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학예사) 등이다.

기조 및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前 국립경주박물관 최선주 관장

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라(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박진경&이소현(덕성여자대학교 연구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포럼은 한국 옷칠 목공예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담론들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원 옷칠 목공예 전시관'의 건립을 위해 국내외 목공예 관계자 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진도서, 인명구조 기여 관제센터 요원 감사장 수여

전남진도경찰서는 지난 27일 진도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 세심하고 적극적인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요

구조사 인명구조에 큰 역할을 한 관제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장을 받은 관제요원은 지난 21일 오전 3시 49분경 CCTV모니터링 중 진도실고 뒷편을 걷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여 경찰서 상황실로 신고하고 적극적인 이동 동선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출동 경찰관이 인근 식당

앞에서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가족에게 신속히 인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미영 진도경찰서장은 "CCTV관제센터가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한 군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도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함평군, 목포미래병원과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10% 감면 협약

'240만원 지원금도 받고 진료비 10% 감면도 받고' 효과 특출

함평군은 "지난 29일 목포미래병원과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진료비 본인부담금 10% 감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광주 세계로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번째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양경호 목포미래병원장과 병원 관계자, 함평군 보건소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만 60세 이상 관내 어

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진료비 감을 위해 체결됐으며 목포미래병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의 10%를 감면한다.

목포미래병원 의료비 감면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수술 전 주민등록등본 등 군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함평군은 지난해 3월부터 소득기

준 없이 60세 이상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한쪽 무릎에 120만원, 양쪽 무릎에 240만원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1년만에 1500여명 2억3천5백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 등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우리 고장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신안군, 건축물대장이 있는 토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법시행 이전 건축물대장 존재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신안군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대장 존재 토지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안군은 농지법(1973. 1. 1.), 산림법(1962. 1. 20.)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 1. 1.)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행 이전에 건축물대장이 생성됐음에도 지목변경에 대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39,000여 건의 건축물대장 및 지적 전산 자료를 전체 조사하여, 항공사진 등 다양한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필지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이를 통해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진/기자



전북도, 선조들 민족정신 계승·발전... 105주년 3.1절 기념식

도내 유일 생존 이석규 애국지사 모시고 도청에서 기념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1일 오전 10시 도청 공연장에서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도내의 주요인사, 국군장병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3·1절 기념식으로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노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개식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생존애국지사 격려, 독립선언문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 유일의 생존애국지사인 이석규 애국지사를 직접 모시고 입장한 뒤 애국지사



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꽃목걸이를 전달했다. 이어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의 독

립선언서 낭독이 이어졌고 1929년 5월 전주공립고등학교 재학 중 동맹휴학 사건에 참여해 항일운동을 한 고(故)

정득량 애국지사 후손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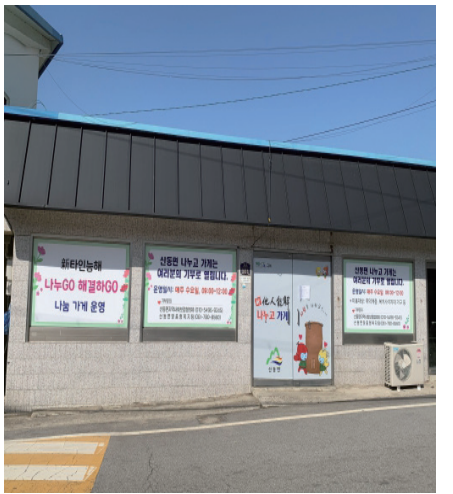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념사에서 국가적 위기마다 가장 먼저 태극기를 들고 힘차게 나섰던 전북의 당당한 역사에 경의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전북에서 발원한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이 표출됐던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으로 울곧게 계승 발전한 것처럼 더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를 향한 큰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청사 외벽과 청사 주변에 50여개의 태극기를 설치하고 전 도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민 애국심을 높이고 3·1절 기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구례군 산동면 '나누고 가계' 타인능해 삶 실천



전남 구례군 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는 3월 6일부터 나누고 가계를 열고 타인능해 나눔의 삶 실천에 나선다.

협의체는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6년에 설립된 민관네트워크 조직체로, 지역의 다양한 복지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나누고 가계는 산동면민의 나눔 거점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누고 가계는 지난 3년간 총 2,871명(연인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고, 2023년 새롭게 시작한 '나누고 해결하고, 복지상담'을 통해 발굴한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36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의료비, 난방유 지원 등 3,500만 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했다.

산동면 원촌길 101(구 명성슈퍼)로 자리를 옮긴 나누고 가계는 오는 3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된다.

올해 나누고 가계는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13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3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나누고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는 물품 배달 서비스와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육구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나누고 가계는 지역민과 출향 향우, 기업인 등 독지가들의 기부금품, 공모사업비, 자원봉사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55명의 독지자가 2,20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후원했다.

유영만 공동위원장은 "나눔의 행복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지역민과 독지가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와보세요, 나누고 열린 문고"와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밝은 내 집 만들기, 우리집 밝히고"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현/기자

완도해경, 순국선열 항일운동 정신으로 '안전한 바다' 약속

제105주년 삼일절을 맞아 해양주권 수호 등 의미 되새겨

완도해양경찰서는 제105주년 삼일절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하여 참배에 나섰다.

28일 오전 11시경 완도군 신지면에 있는 항일 운동 기념탑에서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 간부 직원들이 참석해 추모와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배는 제105주년 삼일절을 맞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진/기자

또한, 참석자들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헌화와 분향 등을 하며 희생정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지며 해양주권 수호와 더불어 해양안전 결의를 다졌다.

이영호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 등을 이어 받아 국민이 안전한 바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완도해양경찰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전했다.

양영울/기자



목포시-교육지원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선정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30~100억원 지원 예정

목포시가 목포·무안·신안 교육지원청, 무안군, 신안군과 함께 공모 신청한 교육발전특구사업에 시범지역(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3년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100억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교육발전특구는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을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신청한 40개 지자체중 31개 지자체(선도지역 19개, 관리지역 12개)가 선정됐다.

김영진/기자

이 3년간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관리지역은 선도지역과 달리 매년 연차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목포시는 전남도 및 도 교육청, 무안군, 신안군, 각 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세부 추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목포시는 교육지원청 및 무안군, 신안군과 공동으로 무안반도 교육발전특구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 대학과 특성화 고등학교 등 의견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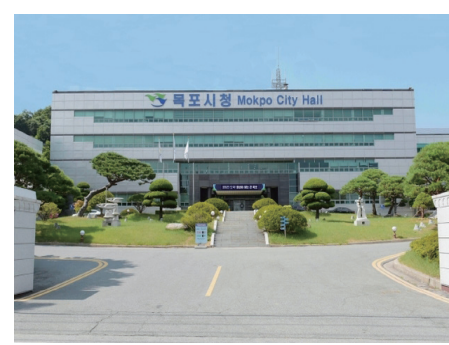
및 실무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이번 공모 공동으로 제출된 기획안에는 무안반도 공동교육 발전모델로 지역발전산업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동연계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목포의 미래전략산업인 해상풍력·해양관광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목표를 담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특구 선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이 찾는 큰 목표를 만들어 가는 선순환 구

조를 만들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범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중배/기자



보성군, 미력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 보성소방서 119 생활안전순찰대 협업

든든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보성군은 지난 28일 미력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와 보성소방서 119 생활안전 순찰대가 협업해 주거 환경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5명의 미력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와 공무원 6명, 119 생활안전순찰대 2명이 참여해 대상자 가정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집안 도배를 교체했다.

특히, 보성소방서 119 생활안전순찰

대에서는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화재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해 생활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대상자 안 모 씨는 "집안에 곰팡이가 심하고 불쾌한 냄새로 집안에서 생활하기 매우 불편했는데 서둘러 도배를 해주시고 화장실 안전 손잡이까지 설치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미력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선종진 대장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많은 것 같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소한 수리나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바로 출동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력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16명으로 구성된 단순한 생활 불편 사항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까지 주변 어려운 이웃 발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원영/기자

광주광역시, 우수인재 채용 창업기업에 인건비 지원

연간 최대 3500만원...타지역 인재 체재비 월 최대 50만원

광주광역시는 지역 창업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인재 채용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작, 4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우수 인재를 채용하거나 현재 창업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유지하고 있는 우수경력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우수인재 인건비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 신청 때까지 관련 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에 있는 자 또는 석사 3년 이상이거나 박사 1년 이상 학위 소지자를 채용했거나 채용을 약속하면 연봉의 70%, 연간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해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다른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50만원 이내의 체재비도 지원,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우수경력자는 창업기업에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1인당 연봉 상승분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 방법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및 인재 역량, 사업수행 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4월부터 22일까지



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과 (재)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 정보마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최의 경제창업공장은 "기술인재 확보와 고용유지는 창업기업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많은 창업기업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창업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술인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해 기업들의 역

량을 강화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경북도,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1,130대 무상으로 지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장애인 고속도로 이용편의 증진 도모

경상북도는 4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1,130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감면단말기 무상 지원 사업은 도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협업해 사회적 약자이내 장애인을 배려하고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추진하고 있다.

무상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통합복지카드(통합료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다. 기존에 감면 단말기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경상북도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고 한국도로공사 대구경

북본부 관내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관련 서류 팩스 송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기존 지문 인식형 단말기 불편 해소를 위해, 핸드폰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일반형 단말기에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 시 이용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장애인 고속도로 이용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블라인드 경매 본격 시행

출하 농민 권익증진과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에 중점

올해 1월 출범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의 첫 사업으로 3월 1일부터 블라인드 경매를 본격 시행한다. 공사는 출범 후 체계적인 농산물 가격 관리 방안을 약속하고 그 이행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블라인드 경매는 농산물 경매를 진행할 때 경매사가 응찰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최고 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 후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공개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는 경매사가 응찰자의 정보를 알고 특정 응찰자에게 물건을 몰아주는 등 부정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해 출하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도매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경매사가 특정 중도매인과의 담합 의심 행위가 있어도 사실상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웠으나 블라인드 경매 도입으로 경매사의 부당한 거래 개입이 억제되고 공평도매시장의 공정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출하자 등은 지난해 12월 블라인드 시범사업 실시 후 담합 등 부정거래의 오해 소지가 해소됐으며 모두 호가분해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경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3월 1일부터 블라인드 경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향후 블라인드 경매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경매 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출하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거래제도 개선으로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 부산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대부분 유지기준 적합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충분한 환기 시행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필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189곳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검사한 결과, 186곳(98퍼센트)이 유지기준 이내 적합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의료기관, 어린이집, 지하역사 등 '중점관리시설'과 대규모점포, 피씨(PC)방, 실내주차장 등 '차별관리시설'로 분류된다. 부산지역에는 총 1천475곳의 다중이용시설이 있다.

검사항목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6

개 항목으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다.

오염도 평균값은 미세먼지 21.7 µg/m3, 초미세먼지 13.8 µg/m3, 이산화탄소 613 ppm, 폼알데하이드 19.7 µg/m3, 총부유세균 250 CFU*/m3, 일산화탄소 0.6 ppm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의료기관 등의 가장 엄격한 유지기준의 각각 29퍼센트(%), 39퍼센트(%), 65퍼센트(%), 28퍼센트(%), 31퍼센트(%), 9퍼센트(%)에 해당되는 값이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의료기관 1곳, 어린이집 2곳 등 총 3곳이며, 부적합항목은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이었다. 이것들은 공기질 개선 완료 후 재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다. 환기는 하루에 2~3차례 이상 실시하고, 황사경보나 미세먼지 주의보 등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자연 환기보다 기계식 환기설비 가동 및 공기청정기 사용이 권장된다. 또한

실내 건축자재 교체 시에는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환기가 될 때는 여름에 주로 교체하며,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승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대인의 생활방식이 점차 실내환경 중심으로 바뀌면서, 어린이, 환자 등 많은 건강약자가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에 우리 연구원은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의성군,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의성군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참배와 제22회 갑진년 3·1독립만세운동 경북 시발지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김주수 의성군수와 도·군의원, 기관·보훈단체장 등 80여명은 3월 1일 오전 10시 항일독립운동에 참가한 의성군 출신 283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헌화 및 분향, 묵념으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참배를 마치고 이어서 오전 11시에는 비안면으로 이동하여 '제22회 갑진년 3·1독립만세운동 경북 시발지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북중부중학교장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3·1절 노래 및 만세삼창, 헌화 및 분향, 참배를 마지막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오늘 진행한 참배 및 기념식은 우리의 역사적인 자산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희망과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군민 모두가 3·1운동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 앞으로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 봉화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쾌거!

이주사회를 대비한 교육발전특구 모델 수립

경북 봉화군은 지난 2월 28일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총 40건이 접수된 가운데 경북은 9개 시군이 신청해 8개 시군이 지정됐으며, 봉화군은 '이주사회를 대비하는 교육발전특구' 모델 수립으로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뉘며 봉화군이

속한 관리지역은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봉화군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

봉화군의 특구 모델을 살펴보면 역점사업인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살기 좋은 글로벌 이주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이주사회에 대비한 모두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존성, 다양성, 수월성, 포용성을 제고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지향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이주사회 대비 공존이해 교육과정 편성과 봉화군 산림자원을 이용한 공동체 의식 함양 생태·문화 체험, 다중언어 역량 강화 교육, 한국

적응지원 다문화커뮤니티 센터, 잠재적 이주 시민 육성 프로젝트 등이다.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봉화군은 매년 교육부에서 30억 원의 재정지원과 교육관련 규제 완화, 각종 특례 지원을 받는 등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인구소멸위험지역인 봉화군이 교육발전을 통해 타개책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김선일/기자

2024년도 청송군농업인대학, '힘찬 개막'

청송군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청송군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가지며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막을 올렸다.

이날 열린 입학식에는 제2기 청송사과사관학교, 제21기 친환경사과반, 제14기 미래농업반 3개 과정의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130여명 입학생들이 자리를 빛냈다.

청송군농업인대학은 2004년 처음 설립되어 청송군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 전문농업인 배양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청송사과사관학교 과

정을 신설하여 현재 농촌에서 문제되고 있는 농촌인력 감소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는 다축·2축·밀식과반의 정치, 전정과 현장중심의 실습 및 이론교육 체계를 확립했고, 이어 올해에는 청송명품사과 산업을 선도할 청송사과명장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과정별 연간 총 19회~22회, 80~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청송군농업인대학 학장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대학 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시대가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점차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나아가 청송사과 산업의 미래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권기창 안동시장, 관내 기업체 방문 행보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 당부

권기창 안동시장은 28일 관내 산업단지 입주한 OKF와 SK플라즈마를 차례로 방문해 기업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OKF 이상신 회장과 SK플라즈마 유용재 공장장을 비롯해 기업 임원진과 권기창 안동시장 및 투자유치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OKF는 멀티 음료 제조공장으로 2008년 풍산농공단지에 입주해 32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현재 18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중견기업이다.

이상신 OKF 회장은 "전 세계를 누비는 OKF 음료가 안동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ESG경영 실천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안동시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 제조·판매기업으로 2015년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 입주해 현재 21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기업이다.

유용재 SK플라즈마 공장장은 "SK플라즈마는 2018년 안동으로 이전 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안동

시의 바이오특화산업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방문을 환영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정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소통해 기업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기업은 더 많은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은 민선 8기 '투자자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 유한건강생활 본사 방문을 시작으로 직접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입암에서 펼쳐지는 화합과 전통의 장, 제13회 영양군 입암면민 화합 민속 율놀이대회 개최

영양군 입암면에서는 지역사회 단합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제13회 입암면민 화합 민속 율놀이대회가 입암애향청년회 주관 하에 2월 29일 입암면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율놀이 대회는 각 기관단체장과 출향인사를 비롯한 주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및 기관단체 등 약 60팀의 율놀이 단체전으로 진행됐다.

입암애향청년회에서는 행사를 위해 풍성하고 다양한 경품 및 음식들을 제

공했으며,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모든 참가자가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입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무료로 차 나눔행사를 진행해 추운 날씨에 훈훈함을 더했다.

이인수 입암면장은 "면민들의 화합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준 입암애향청년회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따뜻한 봄날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대구경북공항 워킹그룹 결과보고회 개최!

대구경북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미래 발전 방안 모색

경북도는 2월 29일 대구경북공항과 연계한 미래 신성장 동력 전략 수립을 위한 '2023년 대구경북공항 워킹그룹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대구경북공항 워킹그룹은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 그룹이다.

지난해 공항 신도시 조성 분과가 신설되어 항공 물류·운송, 항공 MRO·제조, 관광·문화, 농식품·바이오 등 5개 분과 43명 전문가로 구성해 차별화된 특화 전략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 공항 신도시 조성 분과의 전세훈 경북개발공사실장은 '산업단지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공항과 연계한 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개발비용과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어 이를 위해 항공산업과 물류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 물류·운송 분과의 황대유 위원장은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경북공항과 연계한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구 지정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제안했다.

이어 항공 MRO·제조 분과의 윤대식 교수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종합 테스트베드 구축, 항공정비사 교육기관 운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항공전자분야 안정성 인증센터 경북 분원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문화 분과위원장 김시범 교수는 관광·전시 인프라 조성과 MICE 글로벌 전문가 유치·발굴·육성을 통해 경북



의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의견을 내놴다.

이상호 농식품·바이오 분과위원장은 경북지역 농식품 및 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콜드체인 기반의 수출물류 거점센터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경북물류진흥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2022년 워킹그룹에서 제안된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세부계획 수립 등 구체화 단계를 거쳐 지난해 9월 구미에서 국내외 7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앞으로 워킹그룹은 실무적 관점으로 분과별 회의, 세미나 개최, 공방 및 관계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의 미

래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항공물류기업 및 투자유치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남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 "워킹그룹 제안으로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를 개최해 페덱스, STX,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굴지의 기업들과의 MOU 5건을 이끌어낸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4년 워킹그룹에서는 발굴 과제들이 좀 더 실무적으로 정책화 되도록 공방본부 실무팀과 전문가 그룹이 한 팀이 되어 경북공항 시대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들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경로당 행복선생님사업 2024년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울진군은 지난 26일 울진군노인복지관 1층 회의실에서 울진군 보건소, 울진군 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출장소,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총 4개 기관의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 유사프로그램 중복 예방·교육·홍보 등의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유사 프로그램 중복 지원 지양,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보건소 치매 및 우울 대상자 발굴 및 기관연계, 치매예방교육, 경로당 화재안전소방교육 및 소방시설점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홍보 협조, 경로당 운영관련 협의 사항 공유 등 다양한 사업이 논의됐다.

군은 이러한 간담회 등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자원과 경험을 공유



하고, 각 기관 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영 사회복지과장은 "경로당 운영 사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경로

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유관 기관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평가 '최우수 S등급' 쾌거

지역 농식품 창업지원의 중추적 역할 수행



문경시농업기술센터와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최근 2023년도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 달성의 쾌거를 이루었다.

사업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여 운영된 전국 46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매년 현장실태조사(정량평가) 및 발표평가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사업비를 차등 지급한다.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지난해 입주기업 19개사를 육성했으며, 체계적인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성과로 S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지식재산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예산을 절감하

고, 기업지원 및 성과를 제고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는 2011년 개소 이래 교육 및 네트워킹, 전문가 자문, 사업화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기업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며, 품평회 및 전시회,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기획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마케팅·판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 매출 상승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해 왔다.

현재 입주기업 15개사, 졸업기업 141개사로서 지역 농식품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센터를 거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기업이 센터를 통해 성장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성욱 센터장은 "센터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입주기업 수요와 필요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이 큰 몫을 차지했다."라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만든다

연간 132,000원 기본요금 무료택시, 노인일자리 4,236명 제공



경주시가 전국 최고의 노인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탄탄한 복지망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 한해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운영 △노인일자리 △고령자 주택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원 △건강관리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보람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당 연 13만2000원씩 택시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결제 가능하며, 초과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이용자는 약 4만 명으로 집계되며, 지난해 연간 74만 4746회를 이용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180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까지 4236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한다.

노인일자리에는 유형별로 △공익활동형(3356명) △사회서비스형(609명) △시장형(271명)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은 지난해 5월 103세대 입주가 완료됐다. 향상 고령자 복지주택(137세대)은 올 연말, 내남 고령자 복지주택(90세대)은 내년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설계된 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 임대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 어르신들이 우선 입주를 하게 된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상·하반기 수강생 모집으로 취미·건강·교양·정보화 등의 유익한 강좌를 제공한다. 또 당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바

독·장기실, 도서관의 자율이용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기초연금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 최대 49만2000원을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한다.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방문한 어르신에게 손목활동량계, 혈당측정기, 혈압계 등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저소득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3곳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소득자격 기준에 충족한 어르신에게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경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4년 1월 말 6만4521명으로 전체 인구(24만7124명)의 26.1%를 차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올해 더욱 확대된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포항시, 수산업 위기 극복에 수산 분야 오피니언리더 머리맡했다!

해양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 분야 오피니언리더 간담회 개최

포항시는 지난 2월 29일 해양수산업 위기 극복 및 수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수산 분야 오피니언리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임학진 포항수협조합장, 김재환 구룡포수협조합장, 김태훈 동해구수협조합장, 김광철 포항어민회회장, 김동아 포항시수산업경영인연합회회장, 김명환 포항수협어촌계장협의회회장, 박정수 구룡포수협어촌계장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해 수산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급격한 수산자

원 감소로 어업인들이 힘들 때 어업 경영 자금 이차 긴급 지원, 오징어 출어 경비 긴급 지원,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등을 신속히 집행해 준 것에 대해 포항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올해에도 어업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수산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최근 이상기온과 물가 및 유류비 상승, 수산자원 급감으로 우리 어업인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해양수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수산 정책 실현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및 활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해양수산업 84개 사업에 예산 334억 원을 투입해 지속 발전가능한 어촌 만들기 총력을 다한다.

시는 경영위기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18억 원), 첨단양식 기반 확충 및 수산자원 조성 관리(146억 원), 체계적인 어업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연구 해 어업실현(35억 원), 우수수산물 소비 촉진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망 구축(29억 원),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어촌 만들기(106억 원) 등 5개 분야 수산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타용/기자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 결혼이주여성들과 된장 담그기 봉사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는 관내 저소득층, 경로당,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전통 된장을 전수하기 위해 지난 27일 여성회관에서 '사랑의 된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된장 담그기 행사에 사용된 메주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콩으로 빻어 수일간 띄우고 말려 마련됐으며, 장독 소독부터 메주 세척, 염도 조절까지 전통 방식 그대로 진행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우리 된장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강필여 회장은 "된장은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지만 손수 담지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전통음식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영양과 맛을 고루 갖춘 좋은 된장으로 식단을 꾸릴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는 된

장 담그기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집밥 전수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여러 행사에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장문화/기자



인기폭발! 서초문화벨트의 체험형 음악교육 서초구, '클래식 악기 탐구생활' 서울시민 전체로 대상 확대

부모와 학생 2명이 한 팀을 이뤄 바이올린/할 제작과 대패질, 사포질, 바니쉬칠 등 다양한 체험

서울 서초구가 클래식 악기제작 체험 프로그램인 '클래식 악기 탐구생활'의 뜨거운 인기로 힘입어 올해부터 참여대상을 서초구민에서 서울시민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클래식 악기 탐구생활'은 서초구만의 특화된 체험형 음악교육프로그램으로, 바이올린 조립 및 할 제작, 끌과 대패질 실습, 바이올린 바니쉬칠 등의 특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클래식 음악관련 문화적 자원이 밀집한 서초문화벨트(음악문화지구) 내 공방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한다.

2021년 총 200명으로 처음 시작해 서초구 초등학생과 학부모에게 뜨거운 반응을 받았으며 지난해까지 총 600명이 참여했다. 이후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6월에는 경쟁률이 4:1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구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집 대상을 서초구민에서 서울시민까지 확대하고, 참여인원도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클래식 악기 제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악기 소리와 종류를 배우는 이론수업 후 공방에서 악기장인이 직접 악기제작 체험 수업을 진행하며, 부모와 학생 2명이 한 팀을 이뤄 공방 1개소당 2개팀(4명)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체험교육은 신청접수 시 바이올린 또는 할 제작 체험 중에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커리큘럼은 바이올린/할 역사 등 악기소개, 공구 사용시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안전교육, 바이올린/할 재료 및 기능 등 악기구조 설명, 바이올린/할 제작을 직접 체험하는 순으로 총 2시간 진행된다.

수업은 4~11월(7~9월 제외) 매주 토요일 총 20회(1회당 20명) 진행한다. 신청은 수업 전월 1일~15일 접수 가능하며, 선정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한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다. 수업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국내 유일 클래식 음악관련 시설이 밀집한 서초문화벨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클래식 악기 탐구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클래식을 접하고, 음악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2024 서울시 초등학생 모집신청

시립서울향토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2층 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체험형 음악교육 프로그램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2024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수) ~ 2월 15일(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신청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벨트(서초구립공방) 1층

문의: 02-6919-9760

아빠의 행복한 육아 여행, '서초힐링대디'와 함께해요!

지난해 42회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만족도 조사결과 4.92점으로 질적으로도 높은 평가 받아

"아이 기질검사를 통해 우리 아이의 타고난 성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기질에 맞는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막막했던 육아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지난 해 서초구의 '서초힐링대디' 프로그램 중 '아빠의 양육교육 -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에 참여한 초보아빠의 소감이다.

서울 서초구의 아빠육아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인 '서초힐링대디' 참여자가 2022년 220명에서 지난해 459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초힐링대디'는 남성 양육자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양육 트렌드에 맞춰 초보아빠들의 육아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해 서초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두란노 아버지학교와 함께 하는 서초힐링대디, 아빠의 힐링대디 '오르락 내리락' 클라이밍 활동, 아빠와 온가족의 행복 '도요 미식회' 요리활동 등 42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5점 만점에 4.92점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올해도 아빠는 육아달인, 아빠의 양육교육, 아빠의 힐링대디, 아빠의 변화, 온 가족의 행복의 다섯가지 주제로 연말까지 월 4회, 총 44회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아빠는 육아달인'은 예비 아빠부터 아동기 아빠까지 연령별 육아를 배울 수 있는 맞춤형 육아 실습 및 이론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를 연계한 양육코칭 및 양육법, 놀이법, 기질검사 등을 통해 아빠의 양육 스킬을 키울 수 있는 '아빠



서초구가족센터
BASIC FAMILY CENTER

육아 고민! 더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아빠들의 육아를 도와주는 든든한 육아파트너

아빠는 육아달인
예비-아동기 자녀를 맞출 예정 육아실습 및 이론교육

아빠의 양육교육
양육코칭 및 양육법 교육, 기질검사

아빠의 힐링대디
요리교실, 힐링대디클래스 등 문화활동

아빠의 변화
두란노 아버지학교와 연계한 두란노 남성 양육자의 역할 지원

온 가족의 행복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 간: 상시 모집
모집대상: 육아휴직중이거나 예정인 남성 양육자
진행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05 파미에스테이션 2층 공동육아나눔터 (주차비 미지급)
신청방법: 심포아빠, 육아아빠 오픈 채팅방을 통한 정보 확인 및 신청
문의: ☎ 02-6919-9760

의 양육교육'과 다양한 체험기반 원데이클래스와 문화활동으로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아빠의 힐링대디'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아버지의 올바른 정체성과 역할을 제시하고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아빠의 변화'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온가족의 행복' 가족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육아휴직 중이거나 휴직 예정인 남성 양육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심포아빠, 육아아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성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교육·문화 체험활동 '서초프렌데이', 남성 양육자와 아동의 친밀감 제고 및 이웃간 소통 '아빠랑 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 육아 활성화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초보 아빠들이 겪는 육아의 어려움 해소를 돕고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서대문형무소 일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하다

서대문구, 2일 학술심포지엄 열어 '옛 서대문형무소 일대의 역사성과 발전 방안' 모색

서대문구가 2일 현저동 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옛 서대문형무소 일대의 역사성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구는 독립문-서대문형무소역사관-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벨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열었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미래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서 독립공원 일대 역사문화벨트의 가치가 보다 널리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4세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일제 강점기와 광복의 순간을 생생히 들려주며 "미래를 위해 큰 책임을 지닌 현세대가 정의와 자유, 행복이 넘치는 모범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목 총남대 국사학과 교수는 '경성감옥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까지,

한국 근현대를 투영하다'란 제목의 첫 주제발표에서 "서대문형무소가 한국근현대사를 투영하는 공간으로 회복되기 위해 원형 공간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선익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독립공원과 마주하다'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독립운동과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서울의 대표 공간', '독립운동 전체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연계 공간'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했다.

윤인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독립공원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독립문, 독립의전당, 순국선열충혼탑, 구치감, 서대문형무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 관리를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정동 우리근대건축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양성수 국립경찰박물관장, 이홍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 민현석 서울연

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수 광운대학교 방위산업단 특임교수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열렸다.

종합토론에서는 특히 '육군 수방사제1경비단의 청와대 경호 임무가 해제됨에 따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이전한 이 부대를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고 대신 그곳을 바이오, 반도체 등의 첨단 연구단지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특구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발표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최만식/기자



주민과 함께 독립운동의 발자취 거닐다 서울 중구, 그날의 합성을 기억하며 "만세, 만세, 만세"



서울 중구가 제105주년 삼일절을 기념하기 위해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주민과 함께 걸었다.

중구는 3월1일 오전 9시30분 장충동 3·1독립운동기념탑에서 삼일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 학생들이 김길성 중구청장과 릴레이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함께 자리한 200여명의 주민들과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후 참석자들은 '유관순 열사 동상'이준 열사 동상→한국 유럽 독립운

동 파리장서 비'까지 행진하며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었다.

중구청 1층 로비에는 특별기획전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중구를 거닐다'가 3월 말까지 열린다. 중구 곳곳엔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유산이 현재까지 다수 남아 있다. 구는 전시를 통해 관내의 독립운동 기념지와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한다.

지난 2월 29일 중구청에선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3·1독립선언서 캘리

그래피 행사'가 열렸다. 일제 강점기 조상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와 평화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소중함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청 청사 외벽에는 대형 태극기가 펼쳐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조상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의미다. 구는 3월 한 달간 태극기 현수막을 게시한다.

지난 2월 26일에는 KBS 역사저널 그날에서 패널로 활약하고 있는 건국대 신병주 교수를 초빙해 '3·1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이 열린 구청 대강당은 300여명의 직원들로 꽉 들어찼다. 105년 전 독립운동의 열기만큼 역사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직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중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생 970을 대상으로 '삼일절 팝업북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태극기 샌드위치 만들기', '태극기 만들기' 체험 행사는 3월 말까지 진행돼, 아이들과 함께 독립정신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삼일절 기념사에서 "3·1 만세운동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희생,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정신을 되새겨 보자"고 강조했다.

강성원/기자



since 197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The 44th Jindo Miracle Sea Road Festival

제44회 진도 불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24. 3.11. 월 ~ 3.13. 수

전남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주최 Jindo | 주관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3.1절 105주년 기념 마라톤,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연계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3월 1일 춘천 중앙로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강릉시 종합운동장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산림청·춘천시·강릉시·강릉시산림조합 등 7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계기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동시에,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강호철/기자



충남도, 올해 경제림 등 2558ha 조림

도, 271억 투입해 경제림·산불 피해 복구 등 5개 조림사업 추진

충남도는 산주 소득 증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해 올해 2558ha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김후변화와 질병 등 복잡한 원인에 의한 꿀벌 집단 실종으로 벌꿀 생산 여건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특화 조림으로는 공유림과 유유지 등에 헛개나무·백합나무 등을 심는 다층형 복합 밀원숲 조성을 추진한다.

내화수림대 조성은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침엽수 단순림, 문화재, 주택 등 생활권 주변의 산림과 산불 피해지역 등에 산불에 강한 내화성 수종을 심는 사업이다.

산불 피해지역 복구는 지난해 4월 대형 산불 등 피해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세밀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 지역주민과 산주,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구역별로 경제수·밀원수 등을 식재할 계획이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산주 및 양봉농가 등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조림 정책을 추진하고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꿔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2024년도 첫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충청북도도는 2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선용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민희 충북도 인구정책실장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2,604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이번 시행계획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방안"이라며, "충출산·출산·돌봄 정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문화예술 기반확충 등 도정 전반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중국 동관시와 공무원 교류 재개 MOU 체결

박 시장, 2박 3일 일정으로 동관시 방문 "교류 강화해야"



아산시와 중국 동관시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공무원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중국 동관시를 방문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은 3월 1일 뤼청시 동관시장과 교류 회의를 진행한 뒤, 공무원 상호 교환 파견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매년 2명의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고, 파견 공무원은 파견 도시에서 배정된 직무 부서에 소속되어 양 도시의 교류 협력 실무를 담당한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와 동관시는 자매결연을 넘어, 상호 발전을 위한 긴밀하고 단단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산업, 문화예술 분야 교류 강화를 위해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 양 도시의 파견 공무원 프로그램 재개는 양 도시 협력 강화를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뤼청시 시장은 "박 시장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양 도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안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는 실무진 외에도 고위 공무원의 아산 방문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양 도시의 교류 강화는 한중 우호 강화의 훌륭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 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동관시를 방문 중인 박경귀 시장은 동관시장 주최 만찬과 면담, 주요 산업·문화·예술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 양 도시 유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을 소화했다.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동관시는 삼성 디스플레이 등 4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위치한 중국 대표 산업도시로, 아산시와는 2012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육·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해왔다.

박 시장의 이번 방문은 2023년 6월 양 도시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뤼청시 동관시장이 아산시를 방문한 데에 대한 답방으로 추진됐다.

뤼청시 시장은 "동관시의 오랜 친구이자 동반자인 아산시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한다. 지난해 아산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아낌없는 환대와 깨끗한 거리의 모습이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인사하고 "1년 만의 답방으로 양 도시 관계 발전 의지를 보여준 아산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표단을 환영했다.

박 시장은 "큰 환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하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며, 서로 배우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NH NongHyup 100% 영양고추 500g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남영양농협가공사업소

부산시, 중국 서부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국 서부 소비자재 시장 공략을 위해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신규 지원

부산시는 오는 3월 8일까지 '중국 서부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국 소비자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 중소기업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입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 전시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동시에 활용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지역 소비자재 제조 중소기업의 중국 서부 내륙 소비자재 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마련됐다.

먼저, 참여기업이 사오희수, 타오바오, 핀뒤틀, 왕홍 라이브방송 등 다수의 중국인 이용자를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역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물에서 검증된 인기 품목은 현지 편의점과 대형마트에도 공급해 판로를 확대하고 중국 서부 내 위치한 중

청 시내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등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 기회를 극대화한다.

또한, 충칭에서 개최되는 '중국 서부 국제투자무역 박람회(5월)'와 '중국 충칭 국제 소비품 박람회(10월)'에 통합 한국관을 운영해 참여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8~9월 중 참여기업 10개사가 중국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해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국(충칭) 현지에서 지사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체를 공동 추진되는 만큼, 중진공이 확보한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8일까지 시 해외마케팅통합시스템에 참가신

청서와 선정 평가를 위한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지 시장성 평가를 거쳐 지역 소비자재 제조업체 1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지난해 화장품, 식가공품 등 부산지역 소비자재 품목군의 대(對) 중국 수출 증가율이 각각 225퍼센트(%), 20퍼센트(%)를 기록하며, 부산지역 소비자재가

김희태 /기자



칠곡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칠곡군은 28일 교육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정주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칠곡군은 경상북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경상북도과 지역 대학, 공공기관, 산업공단, 교육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칠곡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수립했다.

이번 시범지역 선정으로 칠곡군은 앞으로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 지원을 받으면서, 미래 세

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공존·공감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유아 교육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운영 지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지역공동체를 연계한 지역 통합 늘봄 시스템 구축 ▲교과 중점 중학교 운영을 통한 작은 학교로 유학 프로젝트 ▲고교↔대학↔산업체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여 아이키우기 좋은 칠곡을 만들고, 칠곡군의 미래인재 칠곡 커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광삼/기자



경남도, 투자유치 공격모드로 '기업 부담 ↓, 혜택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시행규칙' 개정 시행

경상남도는 도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개편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어려움과 고용유지 의무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 확대투자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 주요내용은 투자기업의 상시고용인원 인정범위 확대,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요건 완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요건 개정, 업무협약(MOU) 체결 전 투자행위 일부 인정 등이다.

먼저, 어려운 지방의 인력 수급 현실에 맞춰 투자기업이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의 고용인원에 대해서도 상시고용인원 인정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의 기본 고용인원 요건도 시군별 20~60명 이상에서

5~40명으로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부지매입비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부지매매계약일부 1년으로 되어 있던 설비보조금 신청 기한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 사업장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고, 신설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업력 1년 미만 기업에 대한 타당성 점수 배점을 신설했다.

또한 업무협약(MOU) 체결 전 투자행위 일부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협약 지연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 시행으로, 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지원한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확대, 중견기업 입지보조금 5%p 및 설비보조금 1%p 지원비율 상향, 지역 내 첨단 신산업 기업투자를 위한 설비보조금 지원 강화와 지방 신·중설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최저기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도 시행하고 있다.

성수영 투자유치단장은 "이번에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경상남도의 더 나아진 투자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투자활동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선8기 경남도의 핵심사업인 남해안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 올해 투자 유치 목표액인 8조 원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인천시, 중국 현지 유관기업 초청해 경제교류

인천IFEZ 투자유치 세일즈콜 및 인천 중소기업 제품 소개

인천광역시시는 지난 2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중국 현지 경제·무역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투자 홍보 및 인천제품 세일즈콜 활동 등 경제교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 설립된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가 중국 내 현지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천시와 대표처,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중국 뉴질랜드 대표처 우샤오린(邬晓林) 대표와 알리바바 웨이하이 서비스센터 밍핑둥(明平东)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천시와 대표처 소개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인천 및 IFEZ 홍보관과 인천제품 전시관 관람, 그리고 입점기업 제품 소개와 한국 전통놀이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처는 참석자들에게 '한·중 FTA 합의서'와 '인천-웨이하이 간 지방경제 협력 강화 합의서'에 의해 웨이하이에

설립된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알리고, 반도체·바이오·항공·물류 등 인천의 핵심산업을 소개하며,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했다.

또한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인천의 지리적 이점과 IFEZ 투자 인센티브 제도, 글로벌 교육기관과 국제기구 유치현황, 관광지, 축제 등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표처는 중국 물류·유통 대기업 알리바바 웨이하이 센터를 비롯한 바이어들과 인천제품의 중국 내 수출판로 개척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인천의 쇼핑·미식·체험코스·축제 등의 테마와 K-팝 가수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관광상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 송선임 수석대표는 "인천과 웨이하이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두 지역 간 교류를 위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 투자유치 활성화와 인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업계와 지속

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는 2015년 '한·중 FTA 합의서' 및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강화 합의서' 체결 이후 한중지방경제협력 강화와 인천기업의 중국시장 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2016년 11월 웨이하이시 환취구에 설립됐다.

이후 웨이하이시 시정부에서 경제교류의 랜드마크로 조성 중인 이커머스 산업 클러스터, 스마트제조산업단지, 한·중혁신창업산업단지 등이 집적한 위즈덤밸리로 2022년 12월 이전 개소하여 인천과 중국간 창구 역할은 물론 비즈니스 기업지원실 운영과 자문 서비스 등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인천기업에 다양한 서비스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글 및 뷰티 강화를 개설하여 인천과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중남/기자



Art Valley ASAN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플랫폼이 펼쳐집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아산
신정호 아트밸리를 품다

경북교육청, 학교공간지원사업 선정교 사업설명회 개최

모두의 행복한 삶을 담은 경북형 미래학교 조성

경북교육청은 29일 본청 오피스에서 2024년 학교공간지원사업 대상 103교의 업무 담당자와 사업 부서 업무 담당자 등 총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 사업 부서의 9개 사업에 대한 통합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학교공간지원사업은 체육건강과의 수영장 증축 사업, 학생생활과의 Wee클래스 신규 구축과 리모델링 사업, 정책혁신과의 탄소중립 녹색학교가꾸기 사업, 예산정보과의 컴퓨터교육실 환경 개선 사업, 그린스마트스쿨추진단의 경북형 학교공간만들기 사



업, 창의인재과의 무한상상실 모델학교, 경북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지능형 수학 교실 구축, SW-AI 교육 채용 교실 등 총 6개 부서 9개 사업으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도 교육청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간지원사업의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가한 한 업무 담당자는 "학교공간지원사업 추진 과정과 미래학교 조성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사업 추진 중에도 다양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활동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따뜻한 경북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미래교육에 맞춘 학교 교육 공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학교를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미래교육 활동에 충실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군위교육지원청,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강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생 중심 순회 방과후학교



대구군위교육지원청은 2월 29일에 군위교육지원청 창작공작실에서 순회 방과후학교 강사 및 업체 운영진 15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순회 방과후학교 강사제는 강사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순회 강사를 확보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학교에는 강사비와 재료비를 전액 지원하며, 이를 통해 배드민턴, 드론, 기타, 공예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 이바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방과후학교 순회 강사의 역할과 복무 자세, 각종 문서 작성 및

관리, 학생 수업 지도 및 평가, 학생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전년도의 방과후학교 현장 맞춤형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박중희 대구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강사 역할을 함양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반려동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추진

한국펫고등학교 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지·산·학 업무 협약 체결

경북교육청은 29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에 있는 한국펫고등학교의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반려동물 분야 지·산·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다.

교육부는 2024년에 협약형 특성

화고를 10개 내외로 선정하고, 추후 2027년까지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은 학교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3월 말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4-5월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 기준은 교육플랜 40점, 거버넌스 40점, 인프라 10점, 기본사항 10점 등으로 4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35~45억 원 지원, 교육과정 등의 자율성 부여, 교육부 중등 직업 교육 국가시책사업 가산점 부여 등의 재정지원과 자율성을 부여한다.

협약식에는 최선지 경북교육청 정책국장, 김철순 경북도청 동물방역과장, 박창욱 경북도의원, 박현국 봉화군수,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 공공기관, 대학교, 관련 기관, 반려동물 산업체 등 총 60여 개 기관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하여 반려동물 분야 인재 양성과 채

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협약을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한국펫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된다면 향후 글로벌 K-PET 시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반려동물 분야 특성화고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청에서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부산형 통학안전지도시스템 '등굣길안심e' 3월 개통

실효성 있는 통학로 안전 확보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구축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부산형 통학안전지도시스템 '등굣길안심e'를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학부모·지역사회 등 관계자의 인식 제고와 참여가 필수적 요소라 판단해 이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지난해 1월 부산시·경찰청·유관기관

관계자·교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렸다. 이들은 용역업체와 함께 실태조사, 안전 지도 작성 검증 등을 실시하며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반응형 웹시스템인 '등굣길안심e'는 학생의 위치를 기반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실시간 알려주고,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과 위험시설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사용자 누구나 손쉽게 개선 의견을 등록할 수도 있다.

주요 기능은 안전한 통학로 구현, 초

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13개 항목과 위험지역시설 3개 항목 구현, 위험지역에 대한 개선 전·후 사진 제공, 봉사자 배치 지정 구현 등이다. 또한, 2D/3D 변환, 위성 화면 구현, 날씨 안내 등 기능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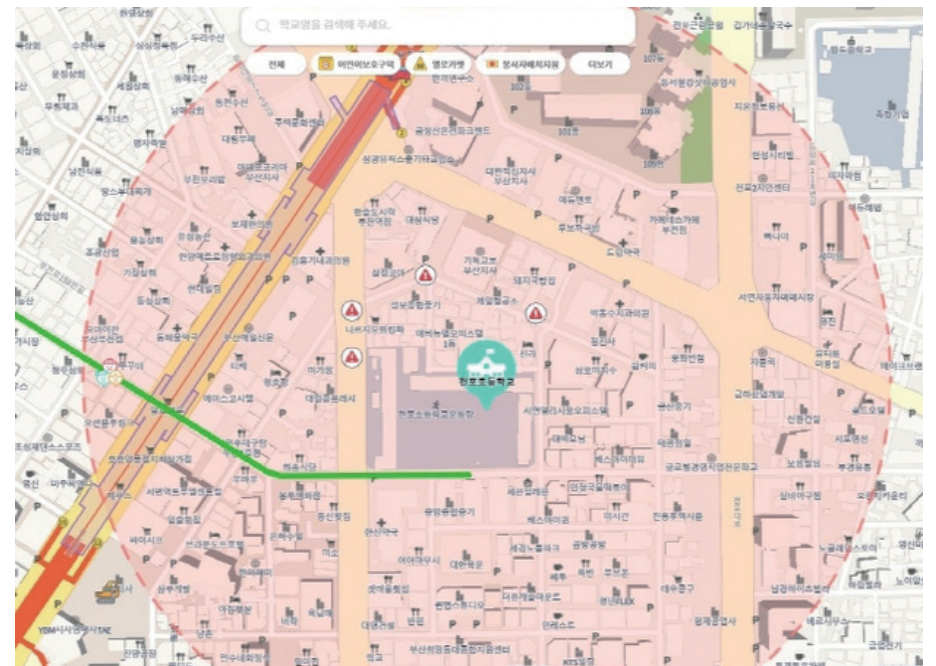
시스템 이용은 도메인 주소로 접속하거나, 다음·네이버 등 인터넷에서 검색 후 접속하면 된다. 시스템 매뉴얼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안전플러스 등에 탑재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

전사고 예방과 위험 요인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에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 시스템 개통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통학로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시스템 개통을 계기로 학부모·지역 주민·유관기관 등 통학로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의 관리주체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양준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강원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 추가 확보

당초 예산대비 9.3억 추가된 총 177.4억 확보

강원특별자치도는 금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국비 17,741백 만 원을 확보하여 18개 시군 113개소에 투입한다.

당초예산 확보액(16,808백만 원) 대비 5.3% 증가한 9.3억원을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이는 정부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협의를 지역 시군 단체장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노력한 결과로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총 255개소(지정 208, 등록문화재 47)를 대상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 자산인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복원 및 훼손 방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문화재 원형보존 및 수리품질 등 강화를 위하여, 도 문화재 위원 및 관계전문가를 통하여 원형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효율적 보수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실시공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 품질향상을 위하여 문화재 수리업 및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수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문화유산 보호체계 구축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관람객과 일반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문화재 수리 현장은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사업비 집행을 제고하는 물론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승기 문화체육국장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철저히 관리·보전하고 가치를 발굴하여 역사의 열이 담긴 문화유

산을 후대에 값지게 계승하고,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강호철/기자



경남도 행정부지사, 비상진료체계 현장점검과 의료진 격려

권역응급의료센터 10곳, 공공의료기관 연장 진료 등으로 의료공백 최소화 노력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3일 삼성창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응급의료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 등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응급의료 비상체계 등 운영 상황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을 찾은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응급실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삼성종합병원 응급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중증환자 중심의 이송상황을 점검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 등으로 총 10곳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과 마산의료원 연장(평일 20시, 토요일 12시 30분) 진료 등 도민 불편이 없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재현/기자



용인특례시, 해빙기 안전사고와 자연재난 예방 위해 시설물과 산지 집중 점검

해빙기 도로 공사장 지반침하와 시설물 균열, 산사태 우려 지역 194곳 안전 여부 확인

용인특례시는 해빙기를 앞두고 자연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과 공공처리시설, 산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해빙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여름 우기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미리 파악해 피해를 예방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해빙기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 시 산림과는 다음달 3일까지 지역 내 194곳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토석류 유출과 지반·절토부 붕괴 ▲대장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적정성 ▲거주민 대상 홍보·교육이다.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응급조치 후 복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산림청이 시행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했다.

대형 도로공사장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시 도로관리과는 지난달 28일 건설사업관리단을 소집해 공사장 안전관리를 지시했고, 오는 8일까지는 도로공사장 13곳의 안전 현황을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처인구 이동읍 천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용인 중1-62호 확포장공사’를 비롯해 모현읍, 양지면, 원삼면, 고림동 일원 대형 도로 공사현장과 지반구조물이다.

안전점검 결과 사고나 하자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담당 기업에 안전대책 수립과 조치 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우기철과 공사 기간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38곳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점검도 병행한다.

시 하수운영과는 오는 15일까지 처리시설을 방문해 시설물의 균열과 지반침하 등을 점검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작업자가 고농도 가스로 인해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한다.

처인구도 저류지와 원격차단시설 등 재난과 관련된 시설을 점검한다.

구는 현재 운영 중인 저류지 7곳과 원격차단시설 7곳에 대한 점검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정비한다.

아울러 우기철 급격한 하천 수위 상승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저류지의 준설과 제초를 포함한 환경정비를 진행해 수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시설은 작동 여부를 점검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도록 준비한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통해 해빙기 지반 침하나 시설물 균열 등이 발견

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빙기 뿐만 아니라 우기철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점검활동을 병행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전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 2월말 종료... 그래도 방심은 금물!

전북자치도, 2월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하나 방심은 금물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3.10.1.~20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하고 있고, 작년 3월에도 도내에서 발생한 사례(1건) 등을 감안해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6일 익산 망성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주간 총 18건이 집중 발생해 239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도내 철새 분포 밀집도가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 인근 산란 가금류 농장에서 주로 발생한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역력한 발생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생 후 2주만에 추가 발생 없이 2개월 이상 비발생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산란가금 농장에 대한 방역전담단 운영,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소독차량 110대를 총동원한 농장주변 및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소독 등 행정과 축산관계자, 농장의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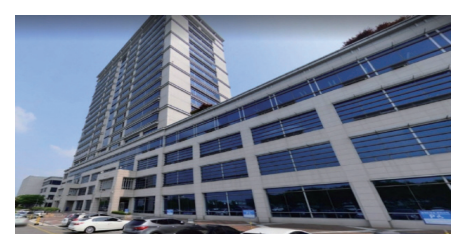
업을 통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종료하고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하나, 철새 북상시기에 따른 산발적인 발생을 대비하게 된다.

3월까지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지속 운영 ▲예찰·검사 강화 ▲오리농가 입식 기준 강화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 연장 ▲입식 전 2단계(도·시군→검역본부) 점검 ▲일제 소독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10만수 이상 산란계 통제소 등 유지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해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이후에도 방심은 금물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남출/기자



대구광역시, 봄나들이 성수 위생용품 집중 점검 실시

대구광역시는 여행 등 야외활동으로 봄철 소비가 증가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점검 및 유통 중인 위생용품 수거·검사에 나선다.

위생용품 제조업소 점검 및 유통 위생용품 수거 검사를 3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구·군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위생용품 제조업소와 대형마트, 생활용품 판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젓가락·숟가락·포크·나이프·컵·종이냅킨·빨대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 여부, 종사자 교육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의무,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위반 업소는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재실시 한다.

또한 지역 내 유통되는 위생용품을 수거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품목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노권을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춘 선제적 위생용품 관리·감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전국 최고급 멜론

세지 멜론



NAJU 나주시 NAJU CITY

영양 들어다보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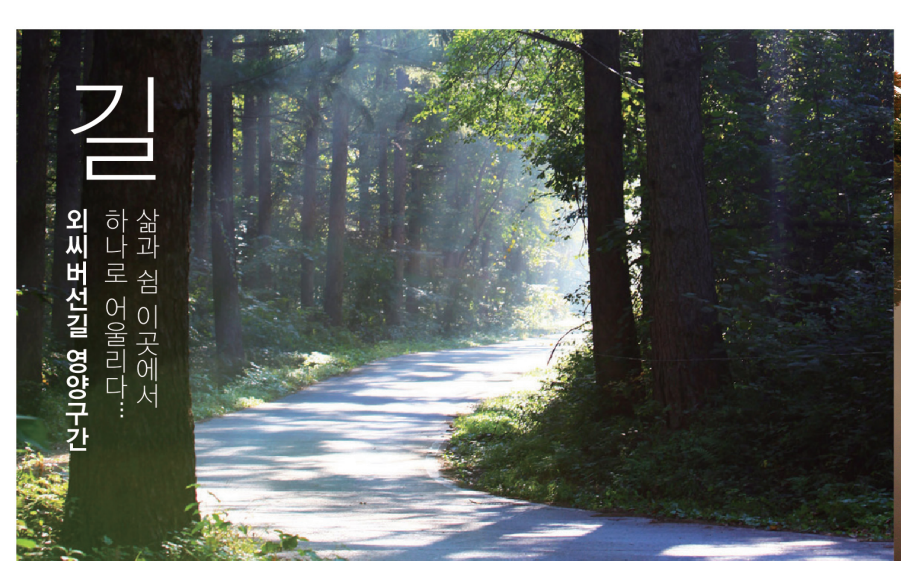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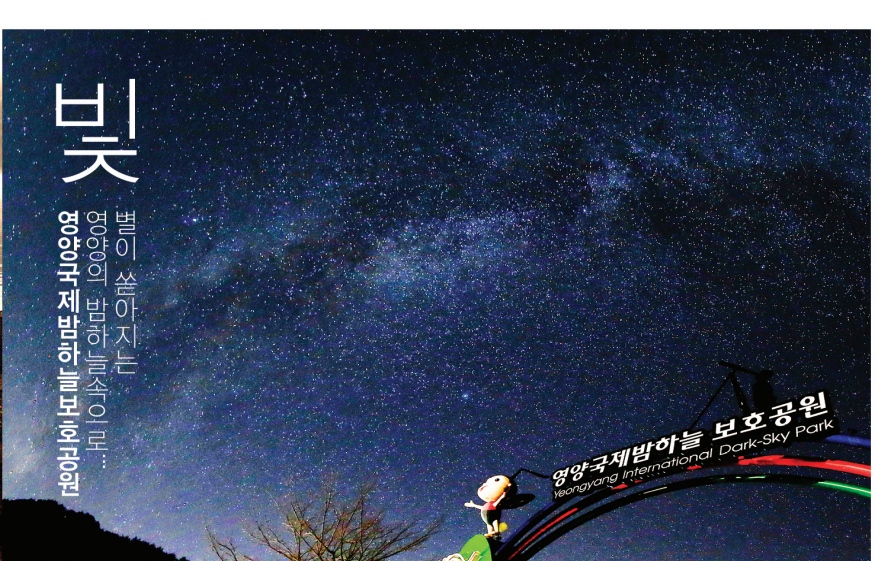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숲과 숲 이곳에서
아름답게 오세요...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물
영양의 아름다움
이제 다 보셨나요?
영양국립자연휴양림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보러 오세요...
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얼
시냇물의 대가
영양서석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_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_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_ 영양국제밤하늘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